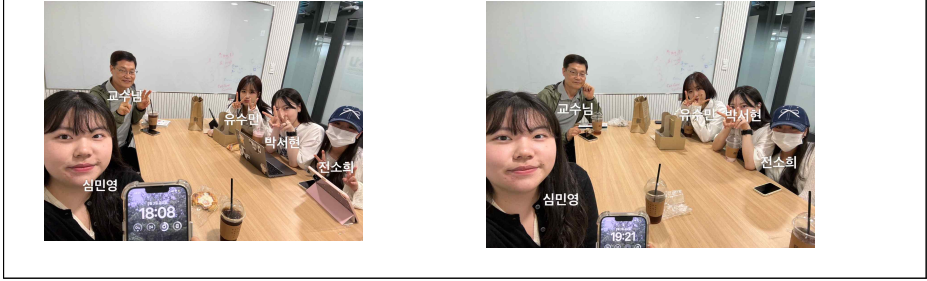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부기는 독서광

| | | | |
|-------------|-------------------|--|-------|
| | 일시 | 4월 3일 18:04 - 19:09 상상관 지하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박서현 2231110 | | ○ | |
| 심민영 2231132 | | ○ | |
| 전소희 2231129 | | ○ | |
| 유수민 2231133 | ○ | | |
| 진도 | 도서명: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 진도페이지: p. 4 ~ p.48 | |
| 1주차 | 토론 내용 | <div data-bbox="406 338 1337 58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236 607 826 629">※ 각자 토론할 주제를 얘기하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음.</p> <p data-bbox="236 640 288 663">-----</p> <p data-bbox="236 674 1246 696">박서현 Q. 자신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생체 시계에 조종당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지</p> <p data-bbox="236 707 1513 786">심민영: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매우 힘들지만, 저녁에 늦게 자는 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녁에 더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친다. 생체 시계에 조종 당하는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생각한다. 일찍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예상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게 된다.</p> <p data-bbox="236 797 1513 875">유수민: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저녁에 하는 것이 집중이 잘 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늦은 저녁 시간에는 피곤한 나머지 하품이 계속 나오기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 생체 시계에 조종 당한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236 887 1513 943">박서현: 저녁형 인간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몇 시간을 잤는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저녁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적게 자도 몸을 움직일 시간이라고 뇌가 생각해서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려고 노력하는 기본이다.</p> <p data-bbox="236 954 1513 1021">전소희: 나는 아침형 인간인 것 같다. 무슨 일을 할 때 저녁보다는 아침에 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고 원래 하루의 패턴때문인지 늦은 시간이 되면 쉽게 피곤해진다. 하지만 밤낮이 바뀌어서 몇 달간 저녁형 인간으로 생활해본 적이 있는데 다시 생활패턴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때 생체리듬에 조종을 당한다고 느꼈고 생체리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p> <p data-bbox="236 1032 1513 1088">전소희 Q. 한국도 미국처럼 생체리듬에 맞춰 수업 시간을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늦추는 것이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몇 시로 늦추는 것이 좋을까?</p> <p data-bbox="236 1099 1513 1178">심민영: 늦추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생체 리듬에 맞춰 수업 시간을 늦춘다고 하면 일반적인 생체리듬을 기준으로 할 텐데 자신과 맞지 않는 생체리듬이라면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불만족 하는 사람이 어디나 생기기 마련일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간을 늦추게 된다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의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p> <p data-bbox="236 1189 1513 1267">유수민: 늦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보통 고등학교는 7:50~8:10 정도까지 등교한다. 그러나 학원같은 이유로 늦게 귀가하면서 위 시간까지 등교하기 위해 또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침 수업 시간에 수면부족 등으로 인해 집중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9시정도로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236 1279 1513 1357">박서현: 모두가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체리듬에 맞출 거면 온라인 수업처럼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라면 모두의 수업 시간을 늦춰버리는 것은 누군가는 끝나고 난 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p> <p data-bbox="236 1368 1513 1424">전소희: 조금은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은 7시 50분까지 등교하며 하고 후 학원과 숙제를 마치고 00시는 넘어야 잠에 든다.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장과 대학교 시간에 맞춰 9시에 등교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p> <p data-bbox="236 1435 1513 1491">심민영 Q. 그렇다면 회사회원이 햇빛이 잘 드는 야외에서 그 전과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한다면 능력 저하, 의욕 감퇴 등의 증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p> <p data-bbox="236 1503 1513 1559">심민영: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사회원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라는 공간과 '일'이라는 직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전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의 효율이 조금은 올라갈지라도 그 수치는 언젠가 다시 떨어져 똑같이 될 것 같다.</p> <p data-bbox="236 1570 1513 1648">유수민: 전과는 다르게 햇빛이 잘 드는 야외에서 회사생활을 한다면 능력 저하, 의욕 감퇴 등의 증상이 감소할 수는 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 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보상이나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236 1659 1513 1715">박서현: 햇빛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회사원들의 어떤 증상들이 감소할 것도 같다. 하지만 이걸 개인의 차이가 매우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햇빛 쬐는 야외가 아니라 서늘하고 시원한 실내에서 능률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p data-bbox="236 1727 1513 1783">전소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암흑에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는 능력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체리듬 등 다른 요소들이 잘 갖춰진 이후에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업무를 한다면 조금은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된다.</p> <p data-bbox="236 1794 1513 1850">유수민 Q. 어째서 수면 연구자들은 아침에 더 생생해지게 만드는 특정 유전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며, 아침형인간에 대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신은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p> <p data-bbox="236 1861 1513 1917">심민영: 나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둘 다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기에 맞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p> <p data-bbox="236 1928 1513 2007">전소희: 아침형 인간이 더 좋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연구결과가 많고 호르몬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저녁형 인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생활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직장 혹은 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업무를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더 효율적인 아침 시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p> <p data-bbox="236 2018 1513 2096">박서현: 아침형 인간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이게 더 좋아질 것 같다. 아침형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내야 하는 일을 저녁형 인간보다 일찍 끝낼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 회사는 할 일을 끝내고 먼저 퇴근해도 되는 문화가 아니다보니 애매하다. 만약 회사의 스타일들이 바뀐다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의욕이 더 생길 것 같기도 하다.</p> <p data-bbox="236 2107 1513 2186">유수민: 나는 아침형 인간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침 시간을 저녁 시간보다 더 많이 활동적으로 사용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p>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5월 3일 18:08 - 19:21 상상베이스 IB103</p> | |
|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 학생</p> | <p style="text-align: center;">클럽원 정보</p> | <p style="text-align: center;">참석 여부</p> |
| | <p style="text-align: center;">박서현 2231110</p> | <p style="text-align: center;">○</p> |
| | <p style="text-align: center;">심민영 2231132</p> | <p style="text-align: center;">○</p> |
| | <p style="text-align: center;">전소희 2231129</p> | <p style="text-align: center;">○</p> |
| <p style="text-align: center;">유수민 2231133</p> | <p style="text-align: center;">○</p> | |
|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p> | <p style="text-align: center;">도서명: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p> | |
| |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페이지: p. 51 ~ p.78</p> | |
| <p style="text-align: center;">2주차</p> |  | |
| | <p>※ 각자 토론할 주제를 얘기하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음.</p> <p>-----</p> <p>박서현 Q. 만약 우리의 뇌가 시간을 어림잡는 능력이 아주 정확해져서 어느 타이밍에 신호등의 색이 바뀌는지, 어느 타이밍에 물이 끓을 것인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생활의 어떤 점이 편할 것 같고 어떤 점이 불편할 것 같은가?</p> <p>심민영: 나는 불편할 게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들을 다 알면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니 오차나 오류가 없을 것 같고 그럴 확률이 적다. 불편한 점 보다는 편리한 게 더 될 것 같다.</p> <p>유수민: 불편할 건 딱히 없을 것 같다. 내가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다.</p> <p>박서현: 불편할 게 더 많을 것 같다. 공부하려고 했을 때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은 것처럼 뇌가 무언가 내가 해야 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오히려 더 하기 싫고 반항심에 더 나태해질 것 같다.</p> <p>전소희: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갈 때 바쁘면 핸드폰으로 대중교통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때 뇌가 정확히 어림잡을 수 있다면 지각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이 정해져있을 때 다른 일을 하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 바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할 것 같다. 반대로 약간은 회피하고 싶을 때 양심에 더 찰리게 될 것 같다.</p> <p>전소희 Q. 실제로 같은 시간임에도 어느 날에는 짧게 어느 날에는 길게 느껴진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p> <p>심민영: 나는 하루를 보내는 건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근데 일주일일이 지나면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갔다고 느껴진다. 하루하루씩은 짧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걸 다 합친 일주일을 돌아보면 벌써 일주일일이 지나갔다고? 하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유수민: 나는 딱 지금 독서클럽 모임 상황이 그렇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흐른다고 생각하게 된다.</p> <p>박서현: 나는 최근에 생일선물로 소희한테 게임을 받았다. 포켓몬스터 게임인데 그 게임이 체육관 관장 8명을 이기고 챔피언을 이겨야 하는 것인데 4월 23일이 생일이었고 그 게임이 택배로 되어서 받았다. 근데 벌써 체육관 관장 8명을 다 이기고 챔피언만을 남겨뒀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다른 예로는 시험 기간에 잠깐만 인스타그램을 할까 싶어서 들어가면 갑자기 3시간이 지나갔고 그런 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진다.</p> <p>전소희: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짧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지는 게 심한 것 같다. 공부랑 과제가 많으면 밤을 새야 하는데 그럴 때는 하루인데도 일주일처럼 느껴진다.</p> <p>심민영 Q. 당신은 평상시 지나가는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만약 기울인다면 왜 기울이는지, 어떻게 기울이는지, 안 기울인다면 당신에게 시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p> <p>심민영: 나는 지나가는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사실 신경조차 안 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시간이란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굳이 세고 싶지 않다.</p> <p>유수민: 평상시에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진 않는데 대중교통 기다릴 때 같은 경우는 몇 분 뒤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간을 보고 있으니 그때는 시간에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딱 집중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지 알아야 할 때는 집중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닐 때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안 기울일 때 만큼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경쓰지 않고 살고 싶다. 흘러가는 게 느껴지면 오히려 너무 한 것도 없는데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인지하고 싶지 않다.</p> <p>박서현: 나도 평상시에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은 나에게 공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람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익숙한 존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시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며 시간이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막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p> <p>전소희: 사실 지나가는 시간에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이는 건 아니지만 기울이는 편인 것 같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 의미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21살 때부터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시간을 신경 쓰면서 지내고 있다. 나에게 시간이란 나도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한다.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을 봤을 때 후회하는 장면들이 없도록 가치있게 보내고 싶은 존재다.</p> <p>유수민 Q. 만약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길게 느낄 것인지, 짧게 느낄 것인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p> <p>심민영: 다음 주에 대만에 놀러간다. 근데 그 능력이 생긴다면 대만 가기 1시간 전까지로 시간을 짧게 느끼고 대만에 가서부터 길게 시간을 느끼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오래 느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활용하고 싶다.</p> <p>전소희: 나는 짧게 느끼게 조정하고 싶다. 하루 중 의미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쉬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짧게 느껴서 다른 시간에 아 이거 해야지 하면서 다음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짧게 조정하여 활용하고 싶다.</p> <p>유수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소희가 말한 것처럼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짧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요즘 날씨 좋으니까 강가나 풍경 바라보며 노래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길게 느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무래도 지금 3학년이다보니까 내년이면 취업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이 짧게 느껴져서 빠르게 느껴지면 좋겠다 해서 이 질문을 썼던 것 같다.</p> <p>박서현: 나는 수민이랑 조금 반대다. 나는 취업 고민을 하는 시간 등을 길게 느끼고 싶다. 고민하는 시간들을 길게 느껴야 그 고민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짧게 느끼고 싶은 건 고통을 느끼는 시간이다. 아플 때는 시간이 참 안 간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p> | |

| | | |
|-------|----------------------------------|----------------------|
| 일시 | 5월 24일 18:04 - 19:04 상상베이스 IB101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박서현 2231110 | ○ |
| | 심민영 2231132 | ○ |
| | 전소희 2231129 | ○ |
| | 유수민 2231133 | ○ |
| 진도 | 도서명: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 진도페이지: p. 81 ~ p.109 |



※ 각자 토론할 주제를 얘기하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음.

박서현 Q. 만약 우리가 1000분의 1초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그렇게 되는 게 좋은지 싫은지

심민영: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책에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빠르다고 한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비행기 조종 게임에서 소리 들리는 게 똑같고 보는 것도 똑같은 게임을 하다가 듣는 걸 몇 초 느리게 재생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 근데 곧이어 사람들이 적응을 해서 다시 제대로 하고 그랬다. 이런 것처럼 1000분의 1초를 지각하면 그거에 또 적응을 해서 게임을 사람은 그대로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 해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을 것 같다.

유수민: 나는 별로 좋을 것 같진 않다. 사실 1000분의 1초라면 달리기 시합할 때 선수들이 그 시간들을 재면서까지 순위가 가르는 시간인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으면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 쓸 게 많아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진 않다.

박서현: 나도 별로일 것 같다. 지루한 시간은 더 지루해질 뿐이다. 나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많아서 내가 1000분의 1초를 지각하면 1000번을 더 지루하다고 느낄 것 같다. 근데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과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5분만 실까? 이게 1000분의 1초로 나누어서 그정도를 실까? 하면 아 너무 많이 쉬었는데 이제 해야지 이런 느낌일 것 같다. 그래서 부지런해질 수 있지 않을까 했다.

전소희: 근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데 우리가 1초 1초를 다 생각하면서 지내진 않는다. 1000분의 1초를 지각하면 그 1초를 더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다. 지금의 1초도 의식하지 않는데 더 작은 1초는 어떨까 싶다. 만약 과제를 제출할 때 1000분의 1초를 지각해서 낼 수 있다면 그런 점은 유용할 것 같기도 하다.

3주차

토론 내용

전소희 Q. 실제로 감각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을 때와 많이 받지 않았을 때의 시간의 차이를 직접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심민영: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 않은가. 다음 날에도. 근데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기 위해 했던 생각과 그 시간들은 다음 날에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이 나지도 않는다. 그런 것처럼 하루를 들여다보면 움직인 시간들은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린 그런 시간들은 내 기억속에 남지 않는다.

유수민: 민영이가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난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휴대폰을 보는 시간들보다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더 길게 남는 것 같다. 휴대폰 하는 시간들은 그냥 아 휴대폰 했네 정도의 기억으로 남는데 대화를 하는 건 나중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떠오르면서 길게 남는 것 같다.

박서현: 나는 예시로 일할 때를 생각해 봤다. 카페에서 일할 때 주문이 엄청 들어와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몇 시간이고 훑 지나가버린 느낌인데 손님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지만 하면 정말 시간이 안 간다. 이게 책에서 나온 내용과 정말 똑같은 내용인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원래는 한 시간 지났어야 할 느낌인데 십 분밖에 안 지나있고 하는 그런 느낌.

전소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어 볼 적이 있다. 밥도 거의 안 먹고 물만 마시는 정도였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때 느꼈을 때는 지루하니까 길다고 느껴졌는데 돌아켜생각해보니 길지도 않고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 생활을 하면 사람을 만나고 재밌는 일도 있는데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이 아니라서 그 순간들이 더 길게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민영 Q.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어느정도까지가 현재인지)

심민영: 나에게 현재는 1초이다. 내가 받고 있는 말들은 이미 과거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미래를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유수민: 정확하게 시간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 순간인 것 같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순간이 현재이고, 이게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순간이 현재이다. 지금 자각해서 인지하는 그 순간순간이 현재이자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것이다.

박서현: 나는 하루를 현재라고 느끼는 것 같다.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6시니까 남은 나의 하루 중 12시까지, 즉 남은 6시간이 나의 현재라고 생각한다.

전소희: 현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과거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고치고 노력해서 미래에 원가를 달성한다고 가정하자. 근데 내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현재의 범위에 넣을 수 있지 않은가 싶다.


유수민 Q.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면 행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의식을 하기도 전에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의식 없이 한 행동이란 것을 인식했던 경험이 있는가?

심민영: 너무 익숙한 것들을 행동할 때 일어나는 게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가까운 예시를 들자면 메가커피에서 일을 할 때 진짜 바쁠 때는 컵에 물이랑 얼음을 담고 그 위에 샷을 넣어야 한다. 근데 혼자 일할 때가 많은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생각을 안 하고 샷을 내리고 얼음을 담고 그런 경험이 있다. 익숙한 일일수록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전소희: 이 책에 나와있는 예시에 전화기가 있었다. 그거 관련해서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다.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보내야 할 때 책을 다 읽고 질문을 지금 정해서 보낼까 아니면 좀 더 생각해서 보낼까 했다. 근데 이미 노트북을 닫아놓은 상태였다. 이런 경험이 있다.

유수민: 사브사브집에서 일하는데 코스가 정해져있다. 일반적인 코스가 잘 나가는데 우리가 코스가 들어왔을 때 당연시하게 일반적인 코스로 준비하고 그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코스였던 경험이 있다. 그런 것처럼 너무 바쁘면 생각없이 몸이 움직이는구나를 느꼈다.

박서현: 나는 자고 일어나서 알람을 끌 때 의식 없이 알람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 자고 싶다는 나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알람을 꺼버리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알람을 끈 기억도 없군 한다. 이런 경험이 이 질문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 <p style="text-align: center;">5월 29일 17:48 - 18:52 우촌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클럽원 정보</th> <th style="width: 40%;">참석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박서현 223111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심민영 223113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전소희 2231129</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유수민 2231133</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진도: 도서명: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진도페이지: p. 113 ~ p.130</p>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박서현 2231110 | ○ | 심민영 2231132 | ○ | 전소희 2231129 | ○ | 유수민 2231133 | ○ |
|-------------|---|--------|-------|-------------|---|-------------|---|-------------|---|-------------|---|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 | | | | | |
| 박서현 2231110 | ○ | | | | | | | | | | |
| 심민영 2231132 | ○ | | | | | | | | | | |
| 전소희 2231129 | ○ | | | | | | | | | | |
| 유수민 2231133 | ○ | | | | | | | | | | |
| 4주차 토론 내용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각자 토론할 주제를 얘기하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음. -----</p> <p>박서현 Q. 현재만 사는 남자 파트에 나온 h.m.처럼 자신이 현재에만 살게 된다면 어떤 것 같은가 심민영: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모르겠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슬픈 인생일 거 같다. 현재에만 사는 나는 그날 그날의 삶을 허덕이며 살아갈 것 같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정말 무의미해질 것이고, 나의 정체성 또한 잃어갈 것 같다. 유수민: h.m.은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책에 나와있지만 나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무엇을 해도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에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될 것만 같다. 박서현: 현재만 살게 된다면 내가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건 다 잊을 것이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내 삶의 이유나 정체성 등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기억하지 않는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지 않을까 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내 존재가 의미있게 되는 느낌으로. 전소희: 현재가 즐겁더라도 한 편으로는 쓸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에만 살게 된다면 과거에는 내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은 누구고 어떤 것들을 좋아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전소희 Q. 자신이 몇십 년 후에도 영원히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억인지 심민영: 사실 나는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의 장면을 고르라고 하면 딱 답을 내지 못하겠다. 그 당시의 순간 순간은 정말 행복하고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나에게까지 확실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은 흐릿하게 남은 기억이지만, 나중에 그 때를 기억하며 사람들과 회상할 때 다시 기억이 선명해지는 그것이 좋다. 유수민: 지금 나에게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면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골라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여행을 갔던 기억, 그냥 밤새 같이 이야기했던 기억을 하나하나 다 소중한 행복했던 기억들이어서 하나를 고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박서현: 무지개다리를 건넌 나의 강아지가 있다. 내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진으로는 남아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어릴 적 내가 거실에서 그 강아지를 뽀뽀하고 동화책을 보여주며 책을 읽어주는 사진이다. 그 친구는 내 곁에서 숨을 쉬며 살아있지 않지만 내 기억에 영원히 어린 들만의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을 바란다. 전소희: 사실 무료로 보내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기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다.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기억에 남을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릴 때도 많고 같은 것을 겪어도 상대방은 기억하지만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무료로 보내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래 기억하고 싶다.</p> <p>심민영 Q.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를 만끽하는 h.m.과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의 삶을 유지할지 심민영: 나는 지금의 우리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억을 다 기억하는 것은 좋을 수도, 고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발전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음이 있다는 것이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것들은 다 나의 추억이고 경험이다. 유수민: 나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어쩌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잊을 수 있으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좋았던 추억과 사람들마저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너무나 큰 불행일 것 같다. 박서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현재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현재만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만큼을 겪어왔고 잊고 싶지 않은 기억, 잊고 싶은 기억 전부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 갖고 싶은 기억을 계속 추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삶이 좋을 것 같다. 전소희: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삶을 선택할 것 같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과거의 내가 없다는 것은 많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안 좋은 기억도 지나보면 다 추억이 되기 마련이니 좋은 기억이든 과거 기억이든 많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p> <p>유수민 Q. 딱 한 달 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나? 기억한다면 어떤 것이 기억의 보조도구였는지, 지난날을 기억하는 방법은 뭔지 심민영: 나는 대만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함께 있었던 친구가 기억의 보조도구인 것 같다. 그 때를 기억하려면 그 친구가 먼저 기억하고 그 중심으로 가지를 뻗듯, 나의 기억은 사람들로 인해 뻗어나간다. 전소희: 구체적으로 생각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의 생신이셔서 축하해주었던 것만 생각이 난다. 또한, 독서클럽을 위해 모이기도 했던 날이었기도 했다. 독서클럽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보조도구가 되어줬고 기억력이 좋지 않은 나는 캘린더에 하나하나 적으면서 지난날을 기억하는 것 같다. 유수민: 나는 그 날에 집에서 쉬었던 것 같다. 늘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달력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는데 이 달력이 나의 기억의 보조도구가 되어주는 거 같다. 나는 이렇게 달력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은 날짜로 나의 지난날을 기억하는 것 같다. 박서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곧 시험이니까 아마도 기말 고사를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다. 어디 다른 곳에 안 가고 수업 듣고 집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지겨우면 유튜브 보면서 땡땡이도 한 번 쳐 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다.</p> | | | | | | | | | | |

| | No. | 클럽원 정보 | 후기 내용 |
|----------|-----|----------------|--|
| 활동 후기 | 1 | 박서현 2231110 | <p>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p> <p>현재만 살고 있는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거나 우리의 뇌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을 알아내고자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p> <p>또한,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같다.</p> <p>독서 토론을 하면서 교수님의 의견도 여쭙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시간이 더 가치있고 풍성해지고 있다고 느꼈다.</p> |
| | 2 | 심민영 2231132 | <p>이번 독서클럽을 통해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라는 책을 읽으며 평상시 그냥 지나쳤던 여러가지의 상황과 일들에 관한 질문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 화자가 던지는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은 읽는 나에게 큰 숙제가 된 적도 많다. 쉽게 질문에 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서클럽을 통해 팀원들과 이야기 하면서 나만의 답을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역시 혼자만의 생각과 의견보단 여러 사람의 머리를 스친 답이 더 알맹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교수님과의 토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을 때가 많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p> |
| | 3 | 전소희 2231129 | <p>책 내용이 뇌과학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살면서 계속 겪고 있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 없는 내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많이 알게 되었다.</p> <p>또한, 이러한 책 내용에 대해 다른 친구들의 경험이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교수님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주신 덕분에 학생들에 비해 경험이 더 많으신 분의 새로운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 같다.</p> <p>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독서클럽에 꼭 참여하고 싶고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다.</p> |
| | 4 | 유수민 2231133 | <p>이번에 처음으로 독서클럽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읽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질문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교수님과 이야기해보는 모든 시간들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책을 읽으며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들어볼 수 있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나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다. 그리고 사실 이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에 많이 와닿았다.</p> <p>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p> |
| | | | |